

■ ‘나주시청 시너 사건’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 참여해 보니 ...

배심원들 유·무죄 놓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

“공정한 판결 고심 법관들 고충 이해되네”

공무집행방해 혐의 만장일치 유죄 판결

“피고인의 상처와 아픔이 커보여 마음이 아프지만 위험한 물건(시너)을 가져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시너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는다. 라이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라이터는 없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오후 광주지법 법정동 2층 회의실에는 일반시민 5명과 기자 6명으로 구성된 ‘그림자배심원’들이 열띤 의견을 내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판결을 위한 평의(評議)였다. 이날 재판은 나주시청에 불을 지르기 위해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구속기소된 A(46)씨의 사건이었다.

핵심 쟁점은 A씨가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했는지를 가리는 것이었다.

배심원 8명과 재판부가 입장으로 재판은 시작됐다. 이상훈 재판장의 국민참여재판과 사건에 대한 설명에 이어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검사와 피고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장은 신문이 진행되는 중간중간 배심원들을 향해 궁금한 점이 있는지를 물었다.

피고인 신문에 돌입하자 양측의 설전은 최고조에 달했다. 검사는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휴대하고, 다수의 공무원들을 협박했다. 보통의 경험과 일반 상식으로 봤을때 시너를 마시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범행수법·피해정도·전과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시너는 압수됐지만 라이터는 압수되지 않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당시 현장에 있었던)들도 A씨가 불을 붙이려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입증

? 그림자배심원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뒤 배심원과 똑같이 평의·평결 절차를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 물론 이들의 평결은 실제 판결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재판제도 개선에 반영된다. 노출되지 않고 방청객을 가장해 재판과정을 지켜본다는 의미에서 ‘그림자’라는 용어가 붙었다. 2010년 9월 도입돼 현재까지 총 500건 7943명이 참가했다.

되지 않아 무죄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은 끝이 났고, 배심원단의 평의·평결이 진행됐다. 그림자배심원단도 평의에 들어갔다.

그림자배심원들은 “A씨가 시너를 가지고 간 것만으로도 공무원들을 위협한 것이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내놨다. 하지만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만장일치가 원칙이지만 시간 상의 제약으로 다수결로 평의를 마쳤다. 결과는 6대 5로 유죄가 많았다.

그림자배심원들은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시너는 압수했는데 라이터는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차에 두고 오면 온도 상승에 따른 폭발 위험이 있어 가지고 왔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날씨를 흐렸고, 최고기온은 15도 밖에 되지 않았던 사실을 제시해 A씨 주장이 허구임을 밝혔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배심원들의 평의·평결도 같았다. 배심원 7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유죄로 판단했다. 단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대해서는 유죄 6명, 무죄 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배심원들은 또 징역 1년6개월(4명), 징역 1년4개월(1명), 징역 1년(2명)의 양형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림자배심원 대표를 맡은 문다성(26·전남대 대학원생)씨는 “침묵하게 대립된 실제 사건의 재판을 경험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닫는 됐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세방산업 발암물질 대책기구 오늘 첫 회의

재발 방지·피해 규명 등 논의

광주 하남산단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대책기구가 활동에 들어간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세방산업 TCE(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배출 대책 태스크포스(TF)가 20일 오후 3시 광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연다. TF는 재발 방지책 마련과 피해 규명 방안, 조업을 중단한 세방산업의 공장 재가동 시기 등을 논의한다.

필요할 경우 세방산업 공장 내부에 대한 설치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TF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시민생활환경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관계자, 광산구의 회 의원, 주민대표, 환경·화학 분야 교수

와 전문가, 언론인, 법률인, 광주시의회의원 등 18명이 참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장 재가동 시기 등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관련 현안은 더는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향후 일정은 TF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 세방산업은 2014년 한해에만 1급 발암물질인 TCE를 294t 배출하는 등 환경부 화학물질배출 조사 결과 2008년부터 6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TCE를 배출한 업체로 꼽혔다.

업체는 광주시민에게 현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해 조업을 잠정 중단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전 선로 개폐기 고장

광산구 3000세대 정전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일원에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 시설물이 고장 나면서 정전이 발생, 주변 아파트 3000여세대 주민과 상가 등이 불편을 겪었다.

18일 밤 9시경 광산구 우산동 광주여대 부근에 설치된 한전 개폐기가 고장 났다.

시설물 고장으로 전력 공급이 차단되면서 인근 하남주공아파트 1, 2단지 3000세대와 주변 상가 10여 곳이 정전됐다. 복구에 나선 한전 측은 30분여 만에 아파트와 주변 상가에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

한전 관계자는 “우산동 일원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물이 고장 나면서 정전 피해로 이어졌다”면서 “현재 고장 원인을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양산호수 수초 제거작업 19일 광주시 북구 공원녹지와 직원들이 본초근린공원 내 양산호수에서 호수 조망권을 향상시키고 수질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수초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때리고 타이어 찢고 ... 데이트폭력 잇따라

고흥경찰 애인 폭행 40대 구속

여수 내연녀 차량파손 60대 입건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리는가 하면 타이어를 찢고내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중·장년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고흥경찰에 따르면 10여개월 동안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집안 살림을 부순 혐의(상습상해 등)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여자친구 A(여·42)씨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해 살림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iu@

법원 “전남대병원 청소노동자 ‘근로자 파견’ 아니다”

전남대병원과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전남대병원 청소용역업체 근로자 26명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과 병원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파견법 적용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은 병원과 청소용역업체는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그 실질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2

년이상 근무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 병원과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며 지난 2014년 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병원이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작업방법 및 순서·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병원이 하는 등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여 청소용역업체가 작업수행상의 독립성이 없다”며 “도급관계가 아니라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청소업무 점거를 하는 것은 청소용역업체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요구하는 절차로서 병원이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라면 안끓인다” 동료 선원 바다 밀쳐 실종 ... 30대 구속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동료선원을 바다에 밀어 실종시킨 혐의(살인)로 이모(34)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새벽 3시30분께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어선 A호(9.77t)에서 동

료선원 A(51)씨를 바다로 밀어 실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씨는 A씨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CCTV 피하려 비닐봉지 썼지만 지문 남겨 범행 밀미



○CCTV에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란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범행을 저지르는 ‘곰수’를 부린 30대 남성이 금전출납기 전선에 지문을 남기는 어수룩함을 보여 경찰에 밀미.

○1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송모(32)씨는 지난 12일 새벽 5시18분께 광주시 북구 한 치킨집에 침입해 19만

8000원 상당의 금전출납기를 파손하고, 현금 7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

○송씨는 비닐봉지로 얼굴을 가리기 전 눈직접으로 금전출납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는데, 경찰은 “금전출납기를 열려고 5분간 씨름하던 송씨가 출납기 자체를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전선에 지문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투자자모심

▶ 대박 주식투자! 저평가주 기업 M&A

▶ 투자하실 분! 5천만원 이상

▶ 매월 5부 이상 배당금 지급

(주) 이앤문투자
H. 010-3627-4742

호텔급,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등 적합
- 시세 / 감평가 - 15억
- 용 7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10억 (일시불 조정가)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의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토지, 6000평

투자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의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33억 / 매매 - 24억 (일시불 조정가)
- 계획관리지역 / 개발호재 많음
- 단기투자 최고지역!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김태산 H. 010-3627-8282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6억 2천만원
- 용자 - 5억 정도 가능
- 임대 - 보5천만에 월250만 보장
- 주인직매 H. 010-3605-5000